6-9-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로마서 5:1-11
말씀제목: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의롭게 됨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기 전, 이른바 율법 시대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짐승들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죄들은 용서 되었지만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은 제거되지 못하여 육신만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이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사 59:1-8)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그들 모두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함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깨닫게 하심이었으며 짐승이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느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를 보면서도 그 피가 자신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 앞에 서시게 될 때에 마침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예수가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깨닫고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게 될 때에(슥 12:10) 마침내 그들의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어 그들이 마침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슥 13:1).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서 받았던 고난을 생각할 때 엄청난 은혜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원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디도에게 편지할 때 증거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13-1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롬 5:3-5,8)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믿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휴거되어 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리."(롬 5:9-10, 살번 1:10)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후 12:10)

아멘! 할렐루야!